

아함경



“수물산 개구리”

〈출전: 집아함경 제18:490경:2-126하〉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옥

우물안은 개구리 울음 소리로 넘치고 있었습니다.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물이 전부란다.

저 번덕스런 하늘은 허상에 불과한것...

튼 구름을 잡겠다고 우물벽을 기어 오르다간

너희들의 인생만 낭비하다 떨어져 죽게 될거야.

넌~

낙오자가 되기 싫다면 하늘쪽은 쳐다 보지도 말거라.

무슨 소리!!

잘 생각해봐. 저 둥그런 하늘과 둥그런 이 우물은 둘이 아닌 하나야.

우물 하늘

아~

무사히 하늘에 닿기만 한다면

우리는 신선처럼 하늘을 날며 살수 있어...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이때 눈 밝은 개구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물밖에는 수많은 우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 하늘은 모든 우물들 위로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와하하하하하...

내 생애 최고로 웃긴 얘기였어.

눈 밝은 개구리는 더이상 할말이 없었습니다.

우하하하 미치광이다.

.....



이렇게 들었다

전투병 파병 요청

강요받는 우방의 희생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침공으로 시작된 이라크 전쟁은 끝났다. 선재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을 괴롭히던 독재자(?) 후세인이 제거되고 나서도 치안을 이유로 미군은 이라크에 머물고 있다. 전쟁은 끝났는데도 이라크 사람들은 계속 미군을 공격하고 그런 만큼 미군이 희생되고 있다. 미군의 주둔 기간이 길어지면서 주방위군과 예비군 가족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미군의 희생에 따른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미국은 우리에게 전투병 파병을 요청한다.

선재는 이미 이상한 김새를 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주고’ 미국 관리들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유연한 발언을 쏟아낼 때부터였다. 급기야는 태풍에 피해를 입었다면서 위로금까지 준다. 전투병을 파병해 달라는 미끼인 셈이다. ‘삼류정정’이라는 말을 생각했던 것이 과연 선재뿐일까? 위로금을 주는 미국 대통령이냐 받는 우리나라 모두 순수

한 마음이어야 할텐데 공짜에 있는 돈을 받자니 우리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파병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우방이니, 국적이니 하지만 우연이나 우방국은 무시하고 이라크를 침략하더니 상황이 불리해지자 뒤늦게 우연을 찾고 우방에 파병을 요청하는 미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도무지 선재는 갈피를 잡을 수 없다. 국악? 다국적군은 모든 비용을 우리가 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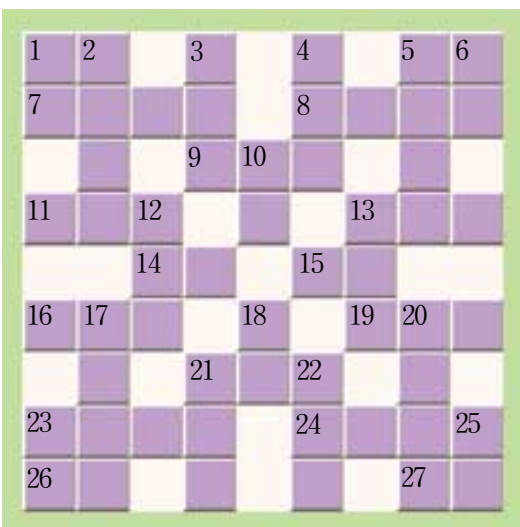
〈육방예경〉에서는 친구란 이래야 한다고 한다.

“위험에 처한 친구를 지켜주고, 병든 친구를 잘 돌봐주며, 친구가 죽었을 때는 장례를 치러주고, 친구가 죽은 후에는 친구의 가족을 돌봐주며, 궁극적으로는 참다운 진리의 길로 이끌어주어야 한다.”

과연 감당할 수 없는 사고를 쳐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인가?

■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석실)

상식퍼즐



가로

1. 갑자기 큰 물결이 일어 해안을 덮치는 일
5. 배우자가 없는 홀몸 7. 마음에서 마음으로 법을 전함 8. 가사를 짓는 불사 9. 부처님이나 수행자의 사리를 봉안한 탑 11. 지장보살님을 주존으로 모신 법당 13. 장군을 상징하는 깃발 14. 냇새를 말하는 감각 15. 가짜 이름 16. 죄과 가장 가까운 전방 19. 완전하고 바른 해탈 21. 지옥 세계 23. 지구상의 기상상태를 관측하기 위한 인공위성 24. 서로서도 도움 26. 뼈아리게 아름다운 경치 27. 맞서서 주고받음.

<440호 <교리퍼즐> 정답>

성	오	설	기	천	상
일	계	법	계	원	초
두	사	원	진	기	
미	지	수	류	과	도
식	사		정	수	
동	문	관	계	정	고
월	백	침	장	성	성
동	관	리	산	불	기

세로

1. 기강 등이 풀리어 느슨해짐 2. 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아 예배하는 것 3. 관심을 끄는 일 4. 경주 불국사에 있는 탑으로 다보탑과 쌍을 이루고 있다 5.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6. 점잖고 예의 바르며 교양 있는 남자 10. 미터법에서 사용하는 용량의 단위 12.전방과 후방을 아울러 이르는 말 13. 오래살기를 기원하며 밝히는 등불 17. 스승이 제법을 전하고 제자가 상속받아 이어감 18. 흰 옥 20. 이해와 실천이 서로 순응하여 어긋나지 않음 21. 참되고 성실한 마음 22. 예산에 들린 금액 23. 한 때 정신을 잃고 숨이 막힘 25. 세와 짐승.

元·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사형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을 최저가격으로 몰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7가지 下藥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 식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 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 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절작용, 산후강장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 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 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자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몸을 精進하시옵기를 祈願
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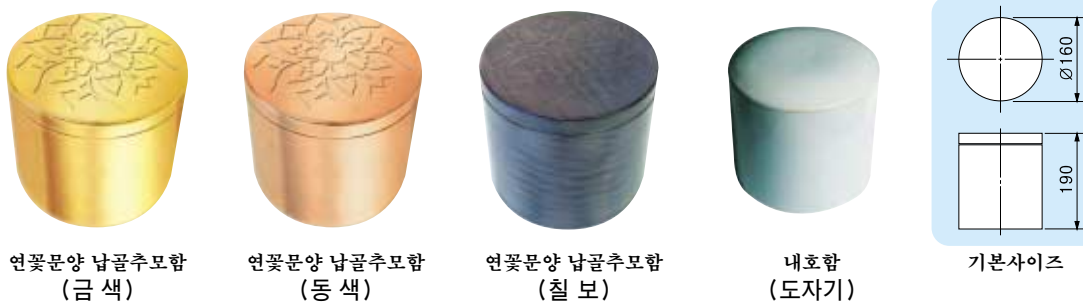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검정(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 山蔘

신소재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별도주문가능)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을 평안하며 안전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추모함 선택은 올바르게!

● 납골당이 공원화 되어가고있는 과정에서 문제발생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처럼 가족과 참배하러 왔는데 심한 악취로 인해 인상을 찌푸리고 마지못해 참배를 올리던 일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악취나는 유골을 그냥 방치해 두는것이 참된 효(孝)일까요? 과연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악취와 벌레까지 생깁니다.
2. 이회사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기법과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확정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람입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가볍고 강하며 외관또한 미려한 이회사의 납골추모함이 있습니다. 이회사의 납골추모함은 납골당이 붕괴되더라도 강한 견고성으로 고인의 유골이 유실됨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을 쾌적한 환경에서 참배하실 수 있습니다.

외관의 문양은 원하시는 문양 또는 글씨를 삽입 할 수 있으며, 문양 삽입후 코팅 처리되어 오래도록 광택 할 수 있도록 정성들여 제작됩니다.

이회사 (02)392-0925 서울시 중구 종림동 155-2 GS빌딩